



UN평화문화특구 추진력 결집

추진위원회 창립회의… 사업계획 자문 및 발전방향 제시

남구는 UN평화문화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6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UN평화문화특구 추진위원회 창립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학교수와 언론인,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30명이 참석, 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부위원장에는 배준구 경성대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장인 이규호 부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UN평화문화특구 추진위원회 창립으로 UN평화문화특구의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UN평화문화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들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순 경성대 교수의 'UN평화문화특구 관광발전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참석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UN평화문화특구추진위원회 창립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

김무남 전 신라대 총장은 남구는 해운대, 영도 대종대 못지않은 자연자원이 많아 UN평화문화특구를 계기로 관광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부산의 모범적인 자치구, 교육지역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희걸 부산MBC 보도국장은 UN기념공원이 참전국 외의 다른 이미지가 없어 평화의 탑 건립을 상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UN기념공원과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과 캐릭터

개발, 사이버추모 사업 등 특구 지정 이전에 이뤄졌던 연구와도 연결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특구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특구발전방향 제시 △신규사업 발굴 △특구지역 내 지역주민 의견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UN평화문화특구의 특화사업은 △일제강제동원역사 기념관, UN평화기념관 건립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부산예술회관·젊음의 광장 조성 △오륙도 UN축제 활성화 △평화도시홍보 및 평화나눔사업 등이다.

구는 앞으로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마를 조성 △부산 세계평화대축전 △UN·평화 테마거리 조성 △UN평화유지군 활동 기념 조형물 조성 △UN Peace Festival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륙도, 유채꽃으로 물들다

남구가 지난해 조성한 오륙도해맞이공원 일대에는 새봄을 알리는 유채꽃이 활짝 피어나 이곳을 찾는 상춘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주민들이 다정하게 유채꽃길을 걸으며 남구의 상징이자 국가 명승 제24호인 오륙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5월, 젊음의 축제’ 내달 16일부터 열린다

부산예술회관 대학로 등서 밴드공연 길놀이 퍼포먼스 등 볼거리 다채

프리마켓 주전부리 부스도 운영

남구와 (사)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는 부산예술회관 개관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5월, 젊음의 축제'를 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축제는 5.16~22일까지 일주일간 경성대~부경대간 대학로와 부산예술회관 젊음의 광장, 평화공원 등에서 대학생과 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문화소통의 잔치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남구지역 5개 대학 등 부산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젊음이들의 건전한 문화축제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

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먼저 축제 첫째날인 16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는 개막식과 DJ파티, 대학의 날 행사가 열리며 다음날인 17일부터 19일까지는 야외전시장과 크로스 노트와 함께하는 뮤직에세이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는 주말을 맞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금요일부터 일요일 시간대에 집중 배치했다.

이 기간동안 주전부리 부스와 프리마켓 행사가 오후 2시부터 젊음의 광장에서 열리며 저녁시간대 대학로 일대에서는 거리 퍼포먼스가 축제의

흥을 돋우게 된다. 회관 공연장에서는 대학의 날 행사가 치러진다.

주요 행사별 일정을 살펴보면 외국인유학생 가요제 글로벌N스타 예선전이 20일 오후 2시부터 야외 특설무대에서, 본선 행사는 오후 5시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UN평화공원에서는 대학밴드 공연과 대학생 공예품 전시회가, 대학로 일대에서는 노릇바치의 길놀이 퍼포먼스, 거리악사 연주 등이 각각 열린다.

21일 저녁 젊음의 광장에서는 동래야류·대학밴드 공연, DJ쇼가 선을 보며 대학로 일대에서는 길놀이 퍼포먼스와 프리마켓, 퓨전국악 공연 등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모으게 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는 젊음의 광장에서 인디밴드가 출연해 폐막공연을 펼치며 회관 공연장에서는 대학연극, 퍼포먼스 공연 등이 열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한편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회관 전시실에서 제시제임스의 '뉴욕카바라본 세계 투어 사진 및 문화사진전'이 열리며 각 대학생들의 조각, 디자인 작품 등이 야외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 남구 가꾸기 앞장

식목일 전후 나무심기 행사 줄이어



남구는 지난달 24일 오륙도SK뷰아파트 뒷편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편백 900그루를 심었다.

제66회 식목일을 전후해 남구지역에서는 푸른 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한 나무심기 행사가 줄을 이었다. 남구는 지난달 24일 용호동 산 195-2 일원 오륙도 SK뷰 아파트 뒷편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철 구청장과 오은택·박두춘·김동환·김광명 구의원, 주민,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편백 900여 그루를 심으며 내고장 가꾸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 곳은 오륙도해맞이 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편백이 성장하면 유채꽃 등의 꽃과 어우러진 생태 숲으

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동과 기관, 단체 등에서도 나무심기에 적극 나섰다.

용당동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간 주민자치위원회 등 8개 단체원 111명이 용당교회 옆 언덕 등 6개소에 모두 3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꽃씨를 뿌리는 봄철 녹화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간동안 용당어린이집(원장 금인순) 원생들은 지난 11일 용당체육공원 등산로에서 꽃씨를 뿌리고 가꾸는 행사를 거쳐 눈길을 끌었다.

<3면에 계속>

남구문화원 큰잔치 개최

내달 12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서

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은 내달 12일 오후 3시부터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제4회 남구문화원 큰잔치를 연다.

이날 행사는 문화원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한해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선보이는 자리로 다도예절, 가야금병창,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오키리나, 벨리댄스, 태극권, 민요관소리, 실버통기타양상블 등 모두 8개 공연반이 참여한다. 초청공연으로 웃음치료, 오륙도무용단·각악이 공연 등이 마련됐다.

수강생들은 발표회를 통해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친다.

다도예절반은 다도를 직접 시범보이며 우리전통차 예절을 알리고 가야금병창반은 '꽃이 피었네', '내고향의 봄' 등 구성진

우리가락으로 축제의 격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 무용반은 산조와 궁거리춤을 통해 흥겨운 우리춤을, 댄스스포츠반은 차차차, 살사 공연을 각각 무대에 올리며 오키리나반은 팝송과 가요를 들려준다.

이어 태극권반과 민요관소리반이 출연해 태극권 시범과 '뱃노래', '진도아리랑' 등 민요를 부른다. 마지막으로 실버통기타양상블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의 가요를 연주한다.

성재영 원장은 "남구문화원 수강생들이 펼치는 큰잔치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남구 문화를 살찌우고 문화 1번지 남구를 널리 알리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24-1333

38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

대동골 경유 교통편의 제공

해운대와 중앙공원을 오가는 38번 시내버스 노선이 도시철도 4호선 개통 등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변경됐다. 중앙공원에서 해운대 신

시가지 방향 운행시 대연3동 대동골(낙동마을)을 추가로 경유하게 되는데 변경 전 상곡회소~문전시장~동부변전소 구간이 상곡회소~문전시장~경동메리빌아파트~남부경찰서~청구아파트~삼익아파트~신원아파트~대우아파트~장백아파트~동부변전소로 변경된 것이다.

남구가 국가교육 과정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받았다.

남구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초청을 받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 과정 선진화 엑스포'에 참가해 다양한 교육 사례들을 전시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그동안 남구는 관내 5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자

연체협학습, 사서교사 및 방과후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다문화교육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 지원 등에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지역인재육성사업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해 교육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전국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0331-중-12545호

5F 이벤트실/뷔페식당 (환자용 자연식단)

3F 암(癌) 재활병동

2F 노인재활병동

1F 원무과/노인재활병동

B1 주차장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각의 깊이가 다른 당신!

당신은 그랜드 자연흥병원 가족입니다

회랑과 대안이 있는 자연속 명품병원

24H 서비스 의료·간호·입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 영양과 바람이 걸려준 좋은 재료에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의학·한의학 보와 통합 의학전 재한 의학·한의학 협진 병원입니다.

호텔형 병원 더 쾌적하고 더 편안한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주간/월간 행사

월 16:00 찾아가는 시민 건강강좌

수 15:00 미술수련 다도 요법

목 15:00 행복 숲로몬 웃음치료

매월 환우와 함께하는 그랜드자연 정기 음악회

황령터널 500m 앞

보호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병원

전화상담 051.612.0075

www.grandnature.kr/608-020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1번지

병원장 나용승 의학박사 現 부산의대외래교수, 부산의과대학후, 동인고후

그랜드 자연흥 병원

GRAND NATURE HOSPITAL